

광양시, 치매 걱정 없는 안심도시 만든다

치매안심종합관리대책 수립 치매 등록·상담·조기검진까지 통합 치매 예방 관리기능 제공 60세 이상 기억력 검사 시행

광양시가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치매안심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치매안심센터를 기반으로 상담부터 조기검진 등 종합 치매 예방·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60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7.31%로 전국(7.40%), 전남(9.16%)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와 치매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매 통합관리 및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치매 조

기검진,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 경로당 방문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치매관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광양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 걱정 없는 광양'을 만들기 위해 2018년도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시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광양읍 외 7개 면·동을 총괄해 치매 등록부터 상담, 치매 조기검진 등 통합적인 치매 예방 관리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진상면에 위치한 폐교를 리모델링해 치매안심센터 분소인 '백학동 기억센터'를 설치하고 광양시 북부권역 4개 면 지역의 경증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치매 초기부터 중증 단계까지 효율적인 치매안심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억력 검사도 시행한다. 광양시보건소는 역점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60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억력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1만2287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기억력 검사를 실시해 190명의 치매 환자를 발견했다.

전년도(1797명) 대비 12.7% 증가한 2026명을 등록 관리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인지 강화 프로그램, 조호용품, 맞춤형 약제비 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억력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치매안심센터(광양읍), 백학동 기억센터(진상면), 면단위 보건지소(6개소), 보건진료소(14개소), 도시보건지소(태인동),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광영건강생활지원

센터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광양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극복 한마음 걷기 행사, 치매 파트너 및 치매 극복 선도단체 양성,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영옥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중증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광양시는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관리, 치매안심마을 지정 및 발굴,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민관 협력 주거환경개선 저장강박 취약계층 대상

광양시는 지난 25일 민관이 협력해 저장강박을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혜 대상자는 독거노인가구로 생활지원사의 요청에 따른 중마동 맞춤형복지팀의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발굴됐다. 저장강박 등으로 집안이 쓰레기로 뒤덮여있고 오랜 기간 청소와 정리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각한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날 주거환경개선 봉사에는 20여 명의 민관 자원봉사자가 협력해 홀로 지내며 불편한 몸 때문에 집 정리와 청소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가구를 방문해 집안 쓰레기와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를 실시했다.

앞으로 우리동네복지기동대의 생활 불편 개선 서비스를 통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생활개선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정훈 중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동민이 행복한 중마동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장흥군 '착한가게' 38곳 등록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군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을 가졌다고 29일 전했다. 이날 가입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착한가게는 지역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매달 3만원 이상 일정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한다.

이날 가입한 착한가게는 BYC 장흥점, 가야탐진대리점 등 23개소다.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나눔에 동참해주신 기부자들에게 감사하며 장흥군 착한가게 23개소의 신규가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



고흥군 풍양면 울치마을에 귀농한 김미숙 농가가 틈새작물로 재배한 옥수수를 들여보이고 있다.

고흥군 제공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자 모집 보성군, 방문·온라인 접수

보성군은 오는 12월31일까지 취약계층 세대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은행 등에서 발급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지원금이 1만5000원가량 인상됐으며 사용기한도 2025년 5월25일로 1개월가량 연장됐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외 별도 지원사업인 등유바우처, 연탄바우처(쿠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송민섭 기자

고흥군, 초당옥수수 조기 출하 기술지도 화제

고흥군은 겨울철 틈새작물로 옥수수를 재배해 고소득을 올린 농가가 있어서 화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지역 겨울철 따뜻한 기후조건을 이용해 휴경 중인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옥수수 조기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풍양면 울치마을에 귀농한 김미숙 농가는 0.2ha(600평) 놓고 있는 하우스를 임대해 옥수수 1만5000주를 식재, 지난 5월24일 가락시장으로 첫 출하해, 4kg(15개)에 4만3000원에 경락받아 이날 최고가로 판매됐다.

이 옥수수는 1월 옥묘, 2월 하우스에

정식, 5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작형으로 재배했다.

초당 옥수수는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생으로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가열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다른 옥수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칼로리는 낮고 당도는 높아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 있는 먹거리이다.

송민섭 기자

순천시, 저연차 공무원과 멘토링 행사 눈길

재직기간 10년 이하 직원 50명 비전 공유하고 소통 시간 가져 "멘토처럼 쓴소리 고마움 느껴"

순천시가 최근 평균 재직기간 4.7년인 MZ세대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데이' 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순천시가 정인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순천시 공무원의 약 51%를 구성하고 있는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과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히 공유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마련됐다.

멘토링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는 시장이 저연차 직원과 공유하고 싶은 경험담과 시의 비전을 설명하는 시

간과 저연차 공무원들의 진솔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순천시장은 자신이 세무공무원을 거쳐 검사로 생활하기까지의 경험담과 그것을 통해 느꼈던 지혜를 쌓는 중요성을 공유하고 생태를 기반한 도시 전략에 필요한 혁신과 창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 저연차 공무원들은 어떤 때 직장에서 힘이 나는지, 어떤 경우에 힘든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 등 직장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직원들의 고민과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순천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한 명 한 명의 의견과 고민을 진지하고 듣고 직장생활 중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

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효과적인 업무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저연차 공무원들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동기부여가 됐다"며, "시장님이 정말 멘토처럼 쓴소리도 해주고 방향성도 잡아준 데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순천시장은 "이번 기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하나로 힘을 모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 내에서 더욱 성장하고 제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구례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구례군이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주요 하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례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 배출업소 및 개인 하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 투기하는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6월부터 8월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이 추진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의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병행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철저한 신고 정신과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환경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